

아동의 놀이성 군(群)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 연구

조 미 정¹⁾

최 태 산²⁾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놀이성 군(群)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 6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최태산, 최명선, 조미정(2008)의 아동용 놀이성 측정도구와 박금옥(1998)이 개발한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 질문지를 초등학생에 맞도록 재구성한 한미현(2005)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놀이성군을 확인 하기위해 군집분석과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6개의 놀이성 하위변인을 기준으로 전체 아동을 분류해 본 결과 낮은 놀이성 군(群), 독자적·재미탐닉지향 놀이성 군(群),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 높은 놀이성 군(群)의 4개의 집단으로 분포되어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모든 놀이성의 하위 차원이 높게 나타난 높은 놀이성 군(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 독자적·재미탐닉 놀이성 군(群), 낮은 놀이성 군(群)순으로 나타났다. 단, 사회참여도의 경우 높은 놀이성 군(群)과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은 동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초등학생, 놀이성, 사회적 유능성, 놀이성 군(群), 관계

1)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강사

2)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E-mail : chamgc@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을 잘하며 사회적으로 유능한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과 또래관계의 어려움, 집단 괴롭힘, 등교거부 등의 문제는 급증하고 있다.

이정화, 이소희(2002)에 의하면 대인관계나 사회, 정서, 생활 등의 적응상의 문제를 보인 아동은 전체 문제를 가진 아동 중 총 39.7%에 속하고 청소년의 경우는 총 26.7%를 넘어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학업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적 풍토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중에서도 또래관계 형성이나 사회적 참여와 대인적응상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김은정, 2010; 김지원, 2010; 이지희, 2009).

이러한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많은 변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그중에서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다른 변인에 비해 개인 심리내적 변인에 의해 높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총 9개의 연구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이해력, 공감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성, 정서지능과 같은 정서

관련 변인(박화윤, 안라리, 2006; 이찬숙, 현은자, 2008)과 지능, 학업성취도, 대인간 문제해결전략등과 같은 인지관련 변인(권연희, 2002; 오현주, 1993; 장수정, 2001), 사회적 지지, 또래관계, 또래 인정욕구, 또래 인기도 등과 같은 사회적 변인(김현나, 이경남, 2008; 단현국, 2004; 박화윤, 안라리, 2006; 이정은, 이채호, 2008; Ashiabi, 2000; Guralnick, 1992; Hubbard & Coie, 1994; Parker & Asher, 1987; Vaughn & Hogan, 1990), 자아 존중감, 자아개념,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관련 변인(임현정, 2009; 정승민, 2005), 애착 안정성과 애착 유형과 같은 모자관계 변인(김지현, 2008; 김현주, 2009; 신지옥, 2006), 기질이나 자기통제와 같은 기질관련 변인(김옥희, 2007; 황경혜, 2009), 놀이성, 유머감각, 놀이유형과 같은 놀이성 관련변인(우수경, 2008; 최명선, 김지혜, 2006; 황윤세, 최미숙, 2007; Ashiabi, 2000; Hughes, 2003; McArdle, 2001; Singer & Rummo, 1973; Singer, Singer & Sherrod, 1980), 불안이나 학대경험, 문제행동 등과 같은 부적응 관련 변인(권연희, 박경자, 2003; 문영희, 1998; 이찬숙, 현은자, 2008),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과 형제관계와 같은 인구학적 변인(강혜연, 2010; 안라리, 2005)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은 주로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 놀이성 측면이 큰 설명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아동이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어떠한 정서적 발달 경험을 하고 놀이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발달을 이루는지, 또는 어떠한 놀이행동을 하는지는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부적응 문제는 놀이시간, 놀이문화의 축소와 놀이를 좋아해도 행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과 높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경혜, 정현아, 2005; 이수희, 이재연, 2008). 즉,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김영희(2003)의 놀이를 잘하는 아동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리더십이 있으며, 사교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아동의 놀이행동의 또 다른 측면인 놀이성은 놀이에 접근하는 심리학적 구인으로 정의되어진다. 놀이성은 아동의 성격특성이나 발달상황, 놀이성향 등을 알아보는데 적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놀이행동의 성격적 특성인 놀이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설명변인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놀이성은 아동의 성격특성의 일면으로 아동의 발달적 측면과 상황, 놀이성향 등을 알아보는데 적합한 개념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설명변인을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드물지만 유머표현 및 유머반응과 또래 유능성을 연구한 이영미(2003)는 아동의 유머 표현과 유머반응은 또래 유능성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유머에 크게 웃으며 반응하는 아동들은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적극적이고 또래와 잘 어울리며 또래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근희(2005),

이경실(1997), 최윤미(2010)는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놀이성은 사회적 유능성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소개된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주제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주제로 이경실(1997)은 아동의 놀이성은 사회적 능력 중 지도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보고하였고, 최윤미(2010)는 유아가 또래와 사이좋게 놀고, 놀이에서 조화로운 신체적 움직임을 보이며 유머를 즐기고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특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두 번째 영역은 놀이성과 또래유능성에 대한 연구들로 김근희(2005)는 유아의 놀이성 군(群)은 전반적으로 놀이를 자발적으로 즐기는 특성을 지닌 집단일수록 또래에게 잘 수용되어 어울리며 또래에게 도움을 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래를 주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는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내용 외에 유아의 놀이성을 군집으로 분류하고 각 군집에 따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차이를 밝힌 연구도 수행한 바 있다. 그 밖에 김다정(2010), 송채봉(2009), 이해경(2010) 등의 연구도 이 주제에 속한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유아의 놀이성과 친사회적 관계를 밝힌 연구(박선영, 2010)로 유아가 놀이성이 풍부할수록 또래와 사회적 관계 안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친애욕구를 지니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모두 유아를 대상으

로 하였고, 놀이성, 유머변인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보다 또래 유능성, 사회적 기술, 친사회적 행동등과 같이 사회적 유능성에 준하는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힌 특성을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놀이성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바가 드물고 특히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과 적응의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전무한 수준이다. 최근 최태산, 최명선, 조미정(2008)은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아동의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척도에 포함된 하위변인들은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을 대표하는 유머감각, 사회적, 정서적 놀이성, 기발성, 독자적 놀이성, 재미탐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앞장에서 밝힌 사회적 유능성의 다양한 설명 변인인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 기발성과 재미탐닉, 유머감각과 같은 기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관련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연구도구라 볼 수 있다. 이 측정도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이 어떠한 군으로 분류되는지를 탐색하고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고자 한다.

아동의 놀이성을 군(群)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각각의 하위변인과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주로 보았거나 하나의 변인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여 차이를 보았던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다양한 놀이성 특성을 지닌 집단을 복합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여 놀이성 집단의 특성을 탐색하고 다른 변인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놀이성의 특성이 동시에 반영된 집단을 구분하고 하나의 하위변인

이 아닌 여러 하위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방법으로 결과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 부모상담, 학교상담, 교사 교육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놀이나 놀이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 1) 아동의 놀이성은 어떠한 군(群)으로 분류되는가?
- 2) 아동의 놀이성 군(群)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광주의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전남 화순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 4, 5, 6학년 총 68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남 화순과 광주 소재 B, G, N, K, H, I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여 불성실하게 응답된 질문지는 제외시켰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306명과 375명으로 44.8%, 54.9%이었다. 학년 분포는 초등 3학년이 163명(24.1%), 4학년이 217명(31.8%), 5학년이 246명(36.0%)이고 6학년이 55명(7.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놀이성

놀이성 측정도구는 초등학교생의 놀이성 측정 도구(최태산, 최명선, 조미정, 2008)를 사용하였다. 놀이성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와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전체 신뢰도는 .97이고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변인별 Cronbach α 와 문항수를 살펴보면 유머감각은 .88, 문항 수는 16개이고 정서적 놀이성 .85,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발성은 .88, 10개 문항, 사회적 놀이성 .80, 14개 문항, 독자적 놀이성 .76, 6개 문항, 재미탐닉 .65이고 5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측정방법은 자기보고식 방법을 선택하였다.

척도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놀이성의 하위변인별 개념은 다음과 같다. 유머감각은 다른 사람의 말을 흉내 내거나 재미있는 유행어를 만들어 쓰고 다른 사람을 재밋게 만드는 다양한 언어적 기술을 가졌으며, 원래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친구들에게 재미를 주는 신체적 움직임을 즐겨하고 쇼맨십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기술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는 등의 언어적 신체적 감각과 기술을 의미한다. 정서적 놀이성은 아동이 놀이할 때 정서적으로 명랑하고 즐거우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정서와 동기를 조절하면서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놀이에서의 정서적 힘을 의미한다. 사회적 놀이성은 아동이

놀이 시 좋은 관계적 성향을 지니고 이를 통해 관계에서의 재미를 추구하며, 공동의 규칙과 흥미를 기꺼이 공유하면서,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상황에서 이타성을 발휘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독자적 놀이성은 아동이 혼자서 노래 부르거나 낙서하기, 또는 욱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등의 행동과 같이 혼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놀이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재미탐닉 아동은 놀이 시 재미를 느끼는 것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높고, 재미위주의 놀이거리를 즐기며, 그런 놀이에 몰입하는 행동 특성을 지닌다. 기발성은 아동이 놀이할 때 독특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표현하고 놀이방식에 있어 유연한 사고와 대처를 하면서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특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놀이성의 개념은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놀이성의 일면을 측정하는 것에 국한된다.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 측정도구는 박금옥(1998)이 개발한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 질문지를 초등학교생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한 한미현(2005)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로 Likert식 5점 척도(어쩌다 그렇다-1, 가끔 그렇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유능성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와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전체 신뢰도는 .97이고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성의 신뢰도는 .87, 문항 수는 10개이며 대인적응성 .91이

고 문항 수는 10개, 사회참여도 .83, 10개 문항, 주도성 .89, 10개 문항, 인기도 .87이며 문항 수는 10개로 구성되어있다. 측정방법은 연구대상이 자기보고가 가능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자기보고식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별 개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유능성은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 등의 5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다. 사교성은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아동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더 유능한 행동을 나타내며 친구를 쉽게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 적응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참여도는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도성은 자신 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주도하고 친구들에게 지시를 잘하며 그러한 행동을 친구들이 잘 따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기도의 의미는 재미있는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되는 놀이성의 하위개념 중 사회적 놀이성은 또래와의 사회적 놀이상황에서 놀이성의 일면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성은 놀이상황이외의 아동의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의 유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념 측정의 상황과 의미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중 몇몇 문항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사교성과 주도성의 하위문항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두 의미 간에 공통된 변량의 영향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를 막기 위해 사회적 놀이성의 몇몇 문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즉, 사회적 놀이성 하위변인 구성문항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유사한 의미를 보이고 공변량을 일으킬 것으로 추측되는 문항은 연구자들 간에 논의를 거쳐 제외하였다(최종문항 29, 31, 32, 34, 35).

3. 연구절차

예비조사

선행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 전 질문의 이해도와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2010년 9월 초에 광주광역시 소재 S 초등학교 3, 4, 5, 6학년 각 학년의 1개 반의 아동 5명씩 총 20명을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아동들에게 설명하고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본 조사

본 조사는 각 학교의 담임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측정도구의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어려운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안내하였다. 조사는 학교사정상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 및 회수하는 간접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자료를 수집한 기관은 광주광역시 소재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전남 화순 소재 초등학교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총 750부를 배포하여 683부를 수거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질문지 2부를 제외한 나머지

681부를 본 조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위를 구하였고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를 구하였다. 또한 놀이성 군(群)을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아동의 놀이성 군(群) 확인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놀이성 군(群)을 분류하기 위해서 여섯 개의 놀이성 점수를 기준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연구대상을 동질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분류기준이나 집단의 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객관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적절한 통계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아동들이 복합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놀이성 특성을 추출하고 그 특성에 맞는 집단 명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설명 변수로 사용된 6개의 하위변인은 각기 다른 측정 단위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중요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평균 0, 표준편차를 1로 하는 정상분포에 따른 표준점수로 전환하였다. 또, K 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해진 군집의 수를 지정하되 먼저 군집 수를 2개 이상으로 지정해 준 다음, 생성된 군집을 모두 검토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고 군집의 특성이 가장 명확한 결과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놀이성 군(群)은 4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변량분석을 통해 군집의 타당성을 알아본 결과 6개의 하위변인은 모두 4개의 집단 간에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6개의 하위변인은 4

표 1. 놀이성 군(群)별 표준화된 점수와 변량분석 결과

	변인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F
놀이성	유머감각	-.884	-.243	.508	1.178	168.685***
	정서적놀이성	-1.037	-.241	.649	1.180	261.437***
	기발성	-1.101	-.115	.676	.995	218.412***
	사회적 놀이성	-.934	-.218	.644	.935	160.801***
	독자적놀이성	-.823.	.192	-.398	.995	110.332***
	재미탐닉	-.838	.173	-.373	.744	78.661***

* $p < .05$, ** $p < .01$, *** $p < .001$,

개의 집단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변수이며 분류된 집단은 타당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각 집단에 해당하는 6개 하위변인의 표준점수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성에 맞는 군집 명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각 집단 특성에 맞는 군(群)명을 명명하기 위해 선행연구(김근희, 2005; 김영희, 1995; 최태산, 조미정, 2008)를 참조하였다.

먼저 집단 1은 놀이성의 모든 하위변인들이 표준 평균 0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 ‘놀이성이 낮은 군(群)’으로 명명한다. 집단2는 재미탐닉과 독자적 놀이성 하위변인만 유일하게 평균보다 상회하고 나머지 모든 하위변인들은 평균 0보다 하회하는 특성을 보여 ‘독자적·재미탐닉 놀이성 군(群)’으로 명명한다. 집단 3은 독자적 놀이성과 재미탐닉 하위변인은 평균을 하회하고 나머지 관계지향적 놀이성과 관련된 하위변인은 평균 0보다 상회하는 특성을 보여 ‘관계지향적 놀이성 군(群)’으로 명명한다. 집단 4는 모든 놀이성의 하위변인이 평균 0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보여 ‘놀이성이 높은 군(群)’으로 명명하였다.

표 2에서는 각 군집에 해당하는 빈도와 백

표 2. 놀이성 군(群)별 해당 아동의 수와 백분율

집단	해당 아동 수	백분율(%)
낮은 놀이성 군	115	22.07
독자적·재미탐닉 놀이성 군	202	38.78
관계지향적 놀이성 군	108	20.73
높은 놀이성 군	96	18.42
전체	521	100

분율을 제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로부터 각 집단 특성에 맞는 군(群)명을 부여한 결과와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의 22.0%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낮은 놀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38.8%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전반적인 놀이성 점수는 낮으나 유일하게 독자적 놀이성과 재미탐닉 하위변인만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에 속하였다. 또한 20.7%의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놀이성 점수가 높아 높은 놀이성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18.4%의 아동들은 집단 2와는 반대로 독자적 놀이성과 재미탐닉 점수가 낮고 관계내의 놀이성 관련 하위변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2. 아동의 놀이성 군(群)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그 결과 4개의 집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교성($F=95.247, p<.001$), 대인 적응성($F=95.671, p<.001$), 주도성($F=75.877, p<.001$), 인기도($F=102.441, p<.001$)은 ‘높은 놀이성 군(群)’,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 ‘독자적·재미탐닉 놀이성 군(群)’, ‘낮은 놀이성 군(群)’의 집단 순으로 평균이 차이를 보여 높은 놀이성을 가진 특성을 가진 집단일 수록 사교적이고 대인 적응적이며 주도성과 인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참여도($F=34.381, p<.001$)의 경우, ‘높은 놀이성 군(群)’과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은 동질집단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독자적·재미탐닉 놀이성 군(群)’이,

표 3. 아동의 놀이성 군(群)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변인	낮은 놀이성 군 (n=119)	독자적 재미탐닉지향 놀이성 군 (n=202)	관계지향 놀이성 군 (n=96)	높은 놀이성 군 (n=108)	F
	M(SD)	M(SD)	M(SD)	M(SD)	
사 회 적 유 능 성	사교성	15.22 (5.08) A	18.95 (4.18) B	21.98 (4.26) C	25.44 (5.57) D 95.247***
	대인 적응성	17.52 (4.90) A	20.96 (4.25) B	23.92 (4.23) C	27.02 (5.09) D 95.671***
	사회 참여도	19.61 (4.38) A	21.49 (3.82) B	23.01 (3.91) C	24.79 (4.96) C 34.381***
	주도성	20.50 (5.20) A	24.88 (5.09) B	26.75 (4.52) C	29.92 (4.58) D 75.877***
	인기도	16.09 (4.66) A	19.96 (3.75) B	22.80 (4.22) C	26.19 (5.13) D 102.441***

* $p<.05$, ** $p<.01$, *** $p<.001$, A, B, C, D는 Duncan사후검증결과

마지막으로 ‘낮은 놀이성 군(群)’의 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즉 관계지향적 놀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놀이성 특성을 보인 집단과 같은 수준의 사회 참여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어온 놀이성 군(群)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

계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비교·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6개의 놀이성 하위변인을 기준으로 전체 아동을 분류해 본 결과 ‘낮은 놀이성 군(群), 독자적·재미탐닉지향 놀이성 군(群),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 높은 놀이성 군(群)’ 등의 4개의 집단으로 분포되어 나타났다.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성 군(群)을 분류한 김근희(2005), 김영희(1995), 이연실(2010)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해 보면 ‘놀이성이

높은 군(群)’과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은 ‘주도활동 놀이 군(群)’과 일치하고 ‘주저관망 군(群)’은 ‘놀이성이 낮은 군(群)’과 일치하며 ‘독자적·재미탐닉지향 놀이성 군(群)’은 소극참여 놀이군(群)과 유사한 맥락임을 보여준다.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태산, 조미정(200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들의 연구에서는 281명을 대상으로 하여 놀이성이 높은 군(群), 놀이성이 낮은 군(群), 기발성이 높고 재미탐닉하며 혼자서도 잘 노는 군(群), 재미탐닉 성향이 낮고 혼자서도 잘 놀지 못하는 군(群) 등으로 나타났다. 683명으로 추출한 본 연구의 군집과 다소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은 유아에 비해 아동의 경우 놀이성이 높은 집단이 ‘놀이성이 높은 군(群)’과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으로 더 세부적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군집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는 ‘독자적·재미탐닉지향 놀이성 군(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낮은 놀이성 군(群),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 ‘놀이성이 높은 군(群)’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출산율 저하로 외동이가 많고, 지나친 학습위주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풍토로 인해 아동이 놀이성이 높은 집단 보다 낮은 집단의 수가 많고 사회적 관계에서 놀이를 하기보다는 혼자 놀이, 혼자 재미를 탐닉하는 놀이를 주로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혼자놀이에 빠져있거나 낮은 수준의 놀이성을 지닌 아동들이 많고 결국 정신 건강에 침해를 받아 사회적 행동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

사해 준다.

둘째, 각 군집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놀이성 점수를 가진 집단의 아동들은 낮은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모든 놀이성의 하위차원이 높게 나타난 ‘높은 놀이성 군(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 독자적·재미탐닉 놀이성 군(群), 낮은 놀이성 군(群) 순으로 나타났다. 단, 사회참여도의 경우 높은 놀이성 군(群)과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은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놀이성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관계지향적인 놀이를 추구하는 아이들에게서 높은 경향이 있었고, 혼자 놀이에 몰입하는 아동, 놀이성이 낮은 아동들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김근희(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놀이할 때 신체, 사회, 인지적 자발성이 높고 즐겁고 유머감각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 유능성에 있어서 긍정적 발달을 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김영희(1995)의 연구결과인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많은 놀이 활동에 참여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한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연실(2010)의 연구결과에서 주도활동 놀이 군에서 주도성 사교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놀이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즐기는 집단일수록 놀이상황에서 또래와 함께 놀이를 촉진하고 배려하며 도와주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특이한 점은 관계지향 놀이성 군(群)의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놀이성 점수가 높은 아

이들과 동질집단으로 사회적 유능성 중 사회 참여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재은(2006)의 연구에서 놀이성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자발성의 48.9%가 친사회성을 설명해주는 하위 요인으로 이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와의 친밀한 접촉과 또래에게 잘 수용되고 자신의 놀이감을 잘 나눠주는 등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아동이 친구에게 인기가 많고 친구와 잘 어울리는 특성이 있다고 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놀이성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고 재미탐닉 점수를 높게 보인 독자적·재미탐닉지향 놀이성 군(群)은 사회적 유능성 하위변인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 군(群)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로 개인의 심리내적 구인인 놀이성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놀이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놀이성이 부모나 학교와 같은 발달적 맥락에서 어떠한 변인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는 연구도 수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혜연 (2010). 유아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 (2002).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연희, 박경자 (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한국아동학회지, 24(3), 27-44.
- 김경혜, 정현아 (2005). 아동이 지각한 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스트레스 및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2(2), 113-131.
- 김근희 (2005).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다정 (2010).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3). 유아 학습형 웹사이트평가도구의 타당화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지, 23(2), 223-240.
- 김옥희 (2007).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반응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 수준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 (2010).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변화와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8).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나, 이경남 (2008).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71-92.
- 김현주 (2009). 학령후기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단현국 (2004). 유아놀이 지도. 서울: 대한교육교과서 주식회사.
- 문영희 (1998). 학령기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금옥 (1998). 청소년의 자기조정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 (2010). 유아의 놀이성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운, 안라리 (2006). 만3, 4, 5세 유아의 연령별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전략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4), 351-369.
- 송채봉 (2009).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욱 (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라리 (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 (1993). 청소년의 대인이해력, 일반지능 및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경 (2008). 유아의 성, 기질, 정서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9), 367-388.
- 이경실 (1997).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희, 이재연 (2008). 부모 체벌과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관계에서 부모 거부의 중재효과. 한국아동학회, 29(6), 135-146.
- 이연실 (2010). 유아의 놀이성과 리더십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 13(1), 33-48.
- 이영미 (2003). 유아의 유머표현 및 유머반응과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은 (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이채호 (2008).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양육태도간의 구조모형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369-287.
- 이정화, 이소희 (2002). 사이버 아동상담에서 주호소 문제와 호소 유형에 따른 상담전략. 한국놀이치료학회지, 5(1), 81-93.
- 이지희 (2009).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기질, 사회적 유능감, 감성지능, 도덕성 및 부모양육태도.

- 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9(3), 223-238.
- 이혜경 (2010).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및 정서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정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정 (2001). 고등학생의 다면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승민 (2005).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선, 김지혜 (2006).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4), 103-116.
- 최윤미 (2010).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태산, 조미정 (2008).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 군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17-30.
- 최태산, 최명선, 조미정 (2008). 초등학생의 놀이성 척도개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4), 35-52.
- 한미현 (2005).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혜 (2009).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세, 최미숙 (2007). 기질과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49-66.
- Ashiabi, G. S. (2000). Promoting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8(2), 79-84.
- Guralnick, M. J. (1992). A hierarchical model for understandi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In S. L. Odom, S. R. McConnell, & M. A.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3), 1-20.
- Hughes, F. P. (2003). 놀이와 아동발달. 김광웅, 유미숙, 박영혜, 유가효, 최영희, 방은령 (역). 서울 시그마 프레스. (원본 발간일, 1999)
- McArdle, P. (2001). Children's pla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7(6), 509-514.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Singer, D. G. & Rummo, J. (1973). Ideational creativity and behavioral style in kindergarten 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 154-161.
- Singer, J. L., Singer, D. G., & Sherrod, L. R.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preschooler's play behavior. *American Psychology Bulletin*, 2, 143-156.
- Vaughn, S. & Hogan. A. (1990). Social competence and learning disabilities: A prospective. In H. L. Swanson, & B.

Keogh,(Eds), *Learning disabilities; Theoretical and research issues* (pp.175-194). Hillsdale, NJ: Erlbaum.

1차 원고접수 : 2011. 4. 08

수정원고접수 : 2011. 8. 13

최종게재결정 : 2011. 8. 31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Playfulness and Their Social Competence(Cluster Analysis)

Mee Jung Cho

Tae San Choi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y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playfulness and their social compet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83 elementary school students - from the 3rd grade to the 6th grade - living in the Gwangju and Jeollanam-do regions.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children's playfulness scale(Tae San Choi, Myung Seon Choi & Mee Jung Cho, 2008) and the social competence scale(Mi Hyun Han, 2005). The research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cluster analysis this was done in order to verify the type of playfulness and one way ANOVA was conduc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social competence. As a result of our classification of all the children by the criteria of six playfulness subvariables, four types seemed to emerge. They are as follows: the low playfulness type, the independent pursuit of fun playfulness type, the relationship-oriented playfulness type and the high playfulness type. Generally, the high playfulness type exhibited the best social competence followed by the relationship-oriented playfulness type, the independent pursuit of fun playfulness type, and the low playfulness type. Both the high playfulness type and the relationship-oriented playfulness type exhibited the best social participation.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playfulness, social competence, playfulness cluster, relation